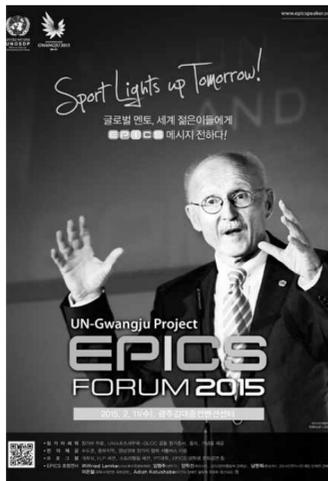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 청소년들에게 들려줍니다”



‘2015 에픽스(EPICS) 포럼’ 포스터.

광주U대회 조직위, UN과 내달 11일 ‘2015 에픽스포럼’ 개최

양학선·남현희, 꿈과 열정... 도전정신 빛나는 금빛 멘토링 팝페라 가수 임형주, 재능기부 통한 나눔 실천 이야기도

“22세 우간다 장애인 소녀의 꿈, 양학선의 금빛 멘토링... 스포츠와 만나는 감동의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합니다.”

국제연합(UN)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2월11일 광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에픽스(EPICS) 포럼’에 참가할 대학생들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15일부터 에픽스 포럼 홈페이지(<http://epicspeaker.org>)에서 받는다.

이 포럼은 광주U대회의 비전인 EPIC(Eco, Peace, IT, Culture)과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의 가치인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Development)를 세

계 청년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세계 청년들이 스포츠의 가치를 공유하고, 저명인사들과 대화를 통해 꿈과 열정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다.

이번 포럼은 ‘스포츠 미래를 밝히다’(Sport Lights up Tomorrow)는 주제로 열린다.

윌프리드 램케 유엔 스포츠특별보좌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간다의 22세 장애인소녀 아이다 카투사베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스포츠를 통해 소외감과 다리 장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약사가 되는 꿈을 꾸는 아이다 카투사베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노래의 청년들에게 들려준다.

2015광주U대회 홍보대사이자 광주U대회에 출전하는 양학선(기계제조)과 U대회를 통해 성장한 남현희(펜싱)는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도전정신에 대한 금빛 멘토링에 나선다. 또 지난 달 홍보대사가 된 임형주 팝페라 가수는 세계적인 음악가로서의 성취 과정과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임형주는 포럼 참가자들과 팬 사인회를 열고 자신의 사인을 새긴 CD를 선물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국제사격심판으로 변신한 이은철 바르셀로나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는 IT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도전 스토리와 스포츠를 통한 변화와 발전에 대해 강연한다.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광주유니버시아드 원년에 열리는 2015 에픽스 포럼은 청년들과 함께 스포츠의 가치와 세계평화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치구 소식

동구, 취학아동 대상 무료 예방접종

광주시 동구는 올해 취학할 어린이(2008년생)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4세 전에 홍역과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폴리오 등을 접종한 뒤 4~6세에 다시 하는 것으로 입학을 앞둔 어린이는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구는 교육청 및 초등학교와 연계해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 미접종 아동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접종대상 아동은 가까운 소아과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예방접종 완료여부는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동구보건소 062-608-3332.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서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광주시 서구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겠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세금을 한 번에 선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에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세무 2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062-360-7530.

/*김형욱기자 khk@kwangju.co.kr

북구,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

광주시 북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말까지 구립도서관과 평생학습문화센터·꿈나무 사회복지관 등지에서 어린이·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꿈나무 겨울방학특강·독서교실·환경영화상영·원어민 영어회화 강좌 등 알찬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북구 우산동 꿈나무 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꿈나무 겨울방학 특강은 ▲전래놀이로 우리문화 즐기기(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신나는 역사탐험(13일~16일 오후 1시30분) ▲창의력 과학교실(20일~21일 오후2시) 등이다.

일곡갤러리에선 이달 말까지 ‘손안에서(愛書) 사진전’과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책이 있어 행복한’ 등 책과 독서를 주제로 한 사진작품전시회가 열린다.

또 ‘그림책과 함께하는 리딩푸드 창의놀이’(15일~16일)와 ‘신나는 역사탐험’(20일~23일) 등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는 15일·22일·29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일곡도서관과 평생학습문화센터, 북구문화의 집에서 ‘새미의 어드벤처2’, ‘비행기’ 등 12편의 환경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16개 품목 1톤 가량

지난해 전량 압류·폐기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16개 품목 1톤 가량이 전량 압류·폐기됐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는 지난해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내 유통 농산물 3223건에 대해 231개 항목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추 등 16개 품목 32건 1톤 가량이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부적합률 1%), 전량 폐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 결과 시금치와 부추는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귀 4건, 참나물과 쑥 각각 3건, 상추 2건, 붕동, 냉이, 고춧잎, 아욱, 취나물, 고구마, 머위, 유채, 쑥, 깻잎순은 각 1건이 검출됐다.

부적합 빈도가 가장 높은 농약은 프로시미돈으로, 곰팡이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매시장에서 반출되기 전의 농산물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27건, 967kg을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생산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조치와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출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는 지난 2011년 개소 이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을 신속히 압류·폐기 처리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힘써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물체험교실 인기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겨울방학을 맞아 최근 3일간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체험교실에 학생과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가, 동물 해부와 광주동물보호소 유기견과 산책 등을 체험했다.

윤장현 시장 “광주가 아시아·세계를 향한 문화 발신지 될 것”

‘국제디자인총회’ 조직위 출범

2015 국제디자인총회를 준비하고 홍보할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옛 서울역에서 열린 2015 국제디자인총회 조직위원회의 발족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최정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성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진단장 등 각계 인사와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위원 21명 등이 참석했다.

윤장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의 대역사가 다시 써지고 꽃 피워지게 될 것”이라며 “광주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사회

의 문화융성시대를 맞아 광주는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발신지, 때론 소통의 거점이 될 것이며 디자인총회가 그 일을 크게 촉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2015 국제디자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외 홍보 및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뒤로 종주국의 개와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는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로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사랑받는 주인이다.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